

## 문학, 밥상을 그린다

우신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문학에서 밥상은 무엇인가

문학 속엔 숯한 밥상들이 등장한다. 어머니와 설령탕 투가리를 부딪다 눈물을 짜고 마는 아들의 밥상도 있고(함민복, <눈물은 왜 짰가>), 순대국밥을 먹으려 입을 찢 벌리는 노인의 밥상(황지우, <거룩한 식사>)도 있다. 제아무리 우아한 사람도 밥상을 마주할 때는 입속을 보여야 하고, 힘껏 국숫발을 끊어야 하며, 깍두기 국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 시인은 말했다. “문득 네가/악착같이 김치를 씹어 먹고 있는 걸 보면/깨달을 때가 있다/식은 떡과 시든 계획과/”(황인숙, <악착같이> 중)

시를 통해 남의 밥상을 둘러보는 일은, 먹고사는 행위의 어찌할 수 없음 속에서 삶의 거룩함을 되씹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어지간한 일을 하루 세 번씩 평생 이어 가라면 넋더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밥상을 마주하는 일만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먹어 이어 가야 하는 삶의 질김에 참담해 하면서도 그러한 먹음의 반복적 제의 속에서 살아갈 온기를 얻는다. 그래서 ‘밥숟가락 들 힘’은 ‘살아갈 힘’에 대한 강력한 제유법이다.

한편 산문 문학에서 그려지는 밥상들은 좀 더 내밀한 사회 문화적 냄새를 풍긴다. 홍보가 밥 먹는 장면을 한번 보자.

무지한 저 홍보는 밥 먹기에 윤기(倫紀) 있어 자식 몇 놈이 뒤통에도 살릴 생각은 아예 않고, 그 뜨거운 밥이로되 두 손으로 서로 쥐어, 세죽(細竹) 방울 놀리는 양 크나큰 밥 덩이가 손에서 떨어지면 목구멍을 바로 넘어 턱도 별로 안 놀리고 어깨춤, 눈 번득여 거의 한 말을 처치한 연후에 왼편 팔 땅에 짚고 두 다리 쪽 뺨치고 오른편 손목으로 뺨가죽을 문지르며...<sup>1)</sup>

밥은 착하기 그지없는 홍보조차도 윤기, 그러니까 윤리와 기강(紀綱)을 버리게 하는 물건이다. 자식이 옆에서 죽어 나가도 밥을 쥐 손은 쉬지 않는다. 저 대목 아래에는 “한 말을 처치한 연후에”나 채워질 듯한, 백성들의 배고픔이 흐르고 있다.

현대 산문 문학 속 밥상들의 목록 역시 유장하다. 저 유명한 “왜 먹질 못하니?” 하는 김 침지의 설렁탕(현진진, <운수 좋은 날>)이 있고, “좁고 깨끗지 못할수록” 더 유년의 맛을 풍기는 중국집 자장면(정진권, <자장면>)도 있다. 혹은 1963년 등장한 이래 한국인의 입맛과 사고방식을 지배해 온 라면 맛(이문열, <변경>)<sup>2)</sup>도 있으며, 다시 2000년대에 라면을 끓이며 산업화 시대의 질감을 복기하는 행위(김훈, <라면을 끓이며>)도 있다.

삶의 심층 구조와 서사적 로망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영 불가능해 보인다. 이 부박한 삶의 영양소로서 라면은 몸속으로 들어온다. 시간의 작용이나 기다림, 환상, 스미, 우리나라처럼 삶에 깊이를 가져오는 기능은 음식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sup>3)</sup>

위의 글로 인해 이제 라면은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이라는 1차 지시와 함께 ‘부박한 현대인의 표층적 삶’이라는

1) 강한영(1987), <홍보가 신재효본>,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보성문화사.

2) “노랗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깨어 넣은 생계란이 또 예사 아닌 영양과 품위를 보증하였다.” [이문열(1998), <<변경>> 7권, 문학과지성사, 177쪽.]

3) 김훈(2015),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3쪽.

2차 지시를 품게 된다. 이처럼 혀의 감각과 육체의 유지, 삶의 두께 모두 밥상을 통해 논할 수 있으니, 밥상은 그야말로 문학의 근본 장소(topos)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포스터(E. M. Forster)는 소설 속 인간의 삶을 출생, 밥, 잠, 사랑, 죽음으로 요약한 바 있다. 삶의 다섯 가지 국면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래서 소설의 근본 주제로 되새김될 만큼 밥은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다. 밥을 먹고 버는 일은 현실이든 허구이든 삶이라는 서사의 기전(機轉)이다. 밥상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배와 마음을 함께 올린다. 나아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던, 혹은 마주 앉지 못하는 누군가를 그림게 만든다.

이 문제적 장소를 현대 소설들이 어떻게 그려 내고 있는가. 그 그림의 언어를 짚어 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대 소설 세 편 속에서 어떤 밥상이 어떤 언어로 그려져 있는지 둘러보려 한다. 이 세 편의 소설 속에는 어지간히 다른 형태의 세 밥상이 등장한다. 밥상에 대한, 그리고 밥상에서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한 서술이 서사 전체에 꽤나 결정적으로 기능한다. 1930년대 이상이 그려 낸 ‘혼밥’ 밥상에서 1970년대 조세희가 그려낸 난쟁이가족의 거친 밥상으로, 다시 2010년 윤대녕이 그려낸 유사 가족의 푸진 밥상으로 이동해 보자.

## 2. ‘모이’와 ‘아달린’의 밥상

이상의 1936년 작 <날개>는 2000년대를 휩쓰는 ‘혼밥’ 열풍을 선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날개> 속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커피를 마신다. 그가 꽃처럼 고운 아내와 사는 방은 장지를 중간에 두고 둘로 나뉘어 있다. 어색하게 나뉜 방은 두 사람이 맺는 기괴한 관계의 공간 상징이다. 이미 작중 인물 스스로 부부의 관계를 ‘절름발이’로 규정한 바 있거

니와 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관계의 성격은 '나의 밥상에서도 드러난다. 뜻밖에 아내는 꼬박꼬박 '나의 끼니를 챙겨 준다. 그것도 손수 지어, 손수 날라다 준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영성하였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넉넉넉하게 받아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여지없이 창백해 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보이듯이 기운이 줄어들었다. 영양 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이 뼈가 불쑥불쑥 내밀었다.<sup>4)</sup>

아내는 절대 자기 방으로 '나를 불러 같이 식사하지는 않는다. 이 규칙은 강고하여 예외를 두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릴없이 '나는 윗방에서 혼자 먹고 자는데, 반찬의 영성함이 '혼밥'의 서글픔을 더한다. 그 섭섭함을 '나는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고 만다. '모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한 그릇 밥이 식사라 불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 가령 그 식사에 들어간 시간이나 마음, 식사 중이나 후에 느끼는 쾌감 등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추지 못한 채 다만 생존의 유지를 위해 섭취될 때 그것은 모이가 된다. 그는 자신이 사육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육을 꾸준히 당하고 있음에도 몸은 말라만 가고 뼈가 돌출되어 잠을 못 잘 지경이다.

내 방에는 다 식어 빠진 내 끼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내 모이를 여기다 주고 나간 것이다. 나는 우선 배가 고팠다. 한 숟갈을 입에 떠 넣었을 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회와 같이 써늘하였다. 나는 숟갈을 놓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룻밤을 비워 버린 내 이부자리는 여전히 반갑게 나를 맞아 준다. 나는 내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잠 잤다. 잘.<sup>5)</sup>

4) 이상(2012), <날개>, 《이상 소설 전집》, 민음사, 93~94쪽.

‘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빈약한 밥상이나마 먹어 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밥은 따뜻할 때만 제대로 된 끼니로 승인된다. 심정적으로 그렇다. 싸늘한 밥의 촉감에 오만 정이 떨어진 ‘나’는 제 체온으로 데워 둔 이부자리로 기어 들어간다. 이처럼 ‘나’의 ‘혼밥’은 차고 가난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흥미로운 것은 취식 행위에서 아내가 등장하는 장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 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뜩한 것을 보면 신열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넌름 받아먹었다. 짹짹한 것이 짐작 같아서야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버렸다.<sup>6)</sup>

아내가 나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짚어 주고 ‘따뜻한 물’에 약 네 알을 챙겨 주는 아내의 모습에는 전례 없는 살뜰함이 깃들여 있다. 심지어 아내는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약을 먹고 ‘나’는 잠이 든다. 이렇게 한 달이나 그 약으로 몸을 보하던 그가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에서 아달린 갑을 발견한다. 결국 그는 양지바른 곳으로 가 아스피린과 아달린, 기만과 최면의 세계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최면의 세계를 벗어나 날기로 결심한 순간 영육의 각성이 찾아온다. 그러니 그가 양상한 ‘혼밥’을 버리고 탈주한 것은, 곧 박제된 삶으로부터 탈주한 것과 다름없다.

5) 이상, 앞의 책, 102쪽.

6) 이상, 앞의 책, 108~109쪽.

### 3.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의 밥상

이상의 <날개>로부터 40여 년 후 현대 소설은 어떤 밥상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1970년대 문학 속 밥상 중 가장 유명한 밥상은 아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것이라. 영수가 철거 계고장을 가지고 왔을 때 마침 그의 어머니는 식사 중이었다. 그녀는 식사를 멈추고 아들이 읽어주는 계고장의 내용을 듣는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사이에, 영수의 눈길은 어머니의 밥상을 스치며 스냅 샷처럼 찍는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sup>7)</sup>

거친 밥과 염분으로 꾸러진 이 밥상은 난쟁이 가족만의 것은 아니다. 뒷집 명희는 “우리 집 밥은 먹기 싫다.”고 말한다. 명희는 영수의 손가락을 짚으며 먹고 싶은 음식의 목록을 읊는다. “사이다, 포도, 라면, 빵, 사과, 계란, 고기, 쌀밥, 김.” 그녀는 자라 때로는 다방 종업원이, 때로는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었고 마침내 십구만 원이 든 통장을 남기고 자살 예방 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받은 기침

7) 조세희(197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30쪽.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sup>8)</sup>

난장이네 가족의 집이 철거되기 시작할 때도 역시 밥상이 등장한다. 밥상 위에 웬일로 쇠고기가 올라 있다. 지섭이 사 온 쇠고기이다. 담이 무너지고 먼지가 나지만 난쟁이 가족은 소리 없이 식사를 이어 간다. 서로의 밥 위에 쇠고기를 올려 주고, 천천히 승냥까지 마신다. 그 엄숙한 식사를, 쇠망치를 든 사람들조차 방해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슬픈 밥상이 대물림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이 밥상도 대물림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중략)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sup>9)</sup>

영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다가 자신의 조상들이 몸으로 노역을 치르는 생으로 일관했음을 알게 된다. 신산한 삶은 유산처럼 세습되었고, 대를 이어 그들의 밥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밥상은 신역의 대가로 얻어 낸 최소한의 밥상이자 ‘별거벗은 삶이나마 유지하기 위한 밥상

8) 조세희, 앞의 책, 122~123쪽.

9) 조세희, 앞의 책, 74쪽.

이었다. 그러니 그 밥상의 신성함은 누구도 쉽게 침범하기 어려울 터, 기어  
이 그 밥상마저 박살 내리는 시대의 잔혹함에 독자는 전율할 수밖에 없다.

#### 4. 함께 끓여 먹는 치유의 약상/밥상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에서 다시 시간의 축을 40여 년 뒤로  
 옮겨 보자. 2016년 상재된 윤대녕의 장편 소설 《피에로들의 집》에는  
 술한 식사 장면이 등장한다. 주인공 김명우가 낙오자들의 대모와 같은 마  
 마를 만나 칼국수를 얻어먹다가, 아예 마마의 집에 들어앉아 같은 낙오자  
 들과 밥을 끓여 먹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수필  
 집 《칼과 입술》<sup>10)</sup>에서 미각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보여 준 작가이니  
 만큼 예상된 바이지만, 그래도 이 소설 속 밥상은 전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푸지고 풍성하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집주인인 마마가 주관하는 저녁 모임이라고 했다.  
 마마와 김현주가 사는 이층은 독립된 한 가구로 돼 있었고 두 개의 방과  
 넓은 거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거실 한가운데 열 명쯤 앉을 수 있는  
 다용도의 긴 목재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음식은 마마가 늘 손수 준비한다  
 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물메기탕과 마른메기찜, 복수육, 생대구탕, 마른홍  
 합꼬치, 참돔회 등 해산물 위주의 음식들이 무슨 잔칫날처럼 푸짐하고 정  
갈하게 차려져 있었다.<sup>11)</sup>

축제나 잔칫상을 방불케 하는 밥상인데, 이 밥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마마 휘하 ‘피에로’들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식사는 의사 없는

10) 윤대녕(2016), 《칼과 입술: 우리를 살게 하는 맛의 기억 사전》, 문학동네.

11) 윤대녕(2016), 《피에로들의 집》, 문학동네, 54쪽.



상담이자, 약물 없는 치료에 가깝다. 물론 파스한 음식을 먹으며 속악한 현실에 다친 속을 달랜다는 설정이 낯선 것은 아니다. 이미 박정애가 <불을 찾아서>에서 훌륭하게 보여준 바 있듯이 소설 속 음식은 영혼을 위무하고, 그것을 나누는자들 간의 연대를 빚어 올린다.

부엌을 나와 퇴에 올라서서는 안방 지게문을 열었다. 발바닥이 뜨끈뜨끈했다. 노인이 부엌과 연결된 쪽문을 통해 소반을 들이밀어 주었다. 쌀밥 두 그릇과 시래기국, 배추김치와 무말랭이, 새우젓이 놓여 있었다. 소반을 받아 놓고 앉아 있으니 영덩이도 뜨끈뜨끈했다.

“맛이 있을라? 촌사람들이사 겨울 되만 안 질리고 묵는 기 시래기국이 지마는 도시 젊은이 입맛에 맞을 동?”

“맛있는데요.”

빈말이 아니라 시래기국이 제법 구수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에다 쌀밥을 말아 먹으니 다른 찬이 필요 없었다. 그야말로 삼대 구원 만에 먹어보는 음식인데도 늘 먹는 국처럼 입에 익었다.<sup>12)</sup>

단편 <불을 찾아서>의 주인공은 갓은 굴욕과 불안정성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삶이 주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나는 출근길에 충동적으로 안동행 버스를 타고 한 할머니의 민박에 묵게 된다. 할머니는 군불을 때고 시래기국을 끓여 객을 대접한다. 이 군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제 안의 추위를 녹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시래기국이 올려진 이 밥상이 ‘삼대 구원 만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즉 개인적인 치유가 행해진 밥상이었다면, 《피에로들의 집》 속 그것은 조금 다르다. 이미 작가가 밝힌 대로 2000년대 한국의 아픈 인간(Homo patiens), 즉 도시 난민<sup>13)</sup>들을 위해 쓰인 소설인 만큼 소설 속 밥상은 집단적 치유의 적소(適所)로 그려

12) 박정애, 한국현대소설학회 편(2005), <불을 찾아서>, 《2005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216쪽.

13) 자본주의의 ‘육식성’을 견디기 어려운 이 식물-인간들이 결국 윤대녕이 의미 있게 호명하고 있는 도시 난민들인데, 윤대녕은 ‘작가의 말’을 통해 도시 난민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토로한 바 있다.

진다. 1990년대 윤대녕표 남성들이 집을 떠나 탐색하던 근원적 장소가 외려 집에서 찾아진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집(아몬드나무 하우스)으로 불러들여 유사 가족을 형성시키는 인물이 바로 마마다.<sup>14)</sup> 어미의 돌봄(caring) 기능과 대비마마의 지엄함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이 ‘마마’라는 인물의 실상인데 그녀는 약해 빠진 도시의 낙오자들을 쉴 새 없이 꾸짖고 먹이고 재운다.

“끼니때마다 동냥아치처럼 싸구려 식당 전전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밥 좀 끓여 먹지 그래. 그게 사는 일의 시작이고 삶을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야. 하나 더, 육고기는 피를 탁하게 하니 입에 대지 말고!”<sup>15)</sup>

‘아몬드나무 하우스’ 입주자들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저녁 제의에 가까운 식사 시간을 나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밥상을 준비하는 과정과 음식에 대한 설명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인물들은 때가 되면 각자의 방에서 나와 2층에 있는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아야 한다. 이 공동 식사 모임은 마마가 주관하는데, 참가 여부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에 가깝다. 때론 밥상머리에서 말다툼과 감정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역시 식사 과정(곧 치유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마마와 미묘한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도 김명우는 마마로 인해 마음의 빗장을 풀어 가고, 폐기물 쓰레기를 자처하던 인물에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갱신해 간다. 다른 인물들 역시 제 몫의 고통과 일상에 찌들다가도 “저녁이 되면 배고픈 짐승들처럼 속속 기어들어”<sup>16)</sup>와 밥을 먹는 다. 그러나 마마는 도시 난민들의 대모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녀가 기실 불임의 몸을 가진 실향민임은 의미심장하다. 세상에서 물러나 ‘아몬드나무

14) ‘마마’는 ‘대왕대비마마’를 줄여 부른 말이지만 그 기원은 ‘엄마’에 가깝다(윤대녕, 앞의 책, 25쪽).

15) 윤대녕, 앞의 책, 60쪽.

16) 윤대녕, 앞의 책, 200쪽.

하우스'에 은신하던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그녀의 법적 가족이 아닌 생판 타인, 즉 김명우다. 생물학적 가족보다 함께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유사 가족이 더 마스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세상과의 불화로 감정이 마비되었던 인물들이 “실제적인 감각으로 순수한 타인에 대한 감정을 느끼”<sup>17)</sup>게 되고 타인에 대한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마마가 이 집에서 베푼 것은 다만 잠자리와 밥상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교육’이다. 윤대녕이 동시대인들에게 제안하는 가족상은 핏줄이나 호적이 아니라 상처와 밥으로 맺어진 감성 공동체인 것이다.

최초의 ‘집’이나 ‘밥상’이 훼손되면 인간은 그것을 은유적 방식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sup>18)</sup> 이 작업에 실패하면 적소성의 결여감<sup>19)</sup>을 삶의 상수(常數)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윤대녕 소설 속 인물들이 시원적(始源的) 공간을 찾아 방랑한 것이다. 그런데 《피에로들의 집》은 혼자만의 방랑을 종료하고, 타인과의 밥상에서 그 적소성을 건축해 간다는 한층 성숙해진 구성을 통해 쓸쓸한 ‘혼밥’의 시대에 묵직한 ‘문학적 제안’을 던진다. 이 작품은 모두가 제 뿌리를 잘린 유동성의 시대<sup>20)</sup>에는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들끼리 모여 끓여 먹는 밥상에서 공동의 뿌리를 찾아야 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집이 아닌 ‘방’에 사는, 심정적 도시 난민<sup>21)</sup>을 자처하는 2000년대 한국의 상처 입은 청년들이 도모할 수 있는 ‘밥상’과 ‘밥상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 소설이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17) 윤대녕, 앞의 책, 109쪽.

1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2011),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179쪽.

19) 김동식(1995), 〈존재를 위하여: 한강과 윤대녕〉, 《문학동네》 2-4.

20)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2009), 《액체근대》, 강.

21) 구승우(2016), 〈도시 속의 청년 ‘난민’: 청년들의 ‘방’ 거주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